

오전(1부, 노량진) 6시
오전(2부) 7시
주일에배 오전(3부) 10시
오후(4부) 3시
수요일에 저녁 8시 30분
서울 교회 02)533-9191
장소: 강서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월드

1부(오전) 7시
2부(오전) 10시
주일에배 3부(오후) 3시
수요일에 저녁 8시 30분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봉우컬럼

사명자(使命者)

예배를 마치고 사우나에 갔더니 아는 얼굴들이 인사를 건넸다.

“예배 마치고 오셨군요.”

“네, 예배 마치고 왔습니다.”

반갑게 인사를 나누는데, 한 사람이 불쑥 끼어들며 말한다.

“목사님, 돈 많이 버셨겠네요.”

그는 가볍게 던진 농담이었을지 모르나, 나는 정색하며 그에게 말했다.

“이봐요, 목사는 돈 벌자고 하는 직업이 아니요. 목사는 사명이요. 나는 사지가 마비되었을 때 하나님이 고쳐주셨기 때문에 내 돈을 뿌려가며 복음을 전하고 있소. 함부로 말하지 마시오.”

심지어 그는 믿는 자였다. 믿는 자의 입에서 목사를 그렇게 비하하는 말이 서슴지 않고 나오는 것은 어쩌면 오늘날 목회자의 현주소일지 모른다. 그래서 더욱 마음이 아파 정색했는지 모른다. 그는 죄송하다고 말하고는 슬그머니 나가버렸다. 목사는 생계를 위한 선택이 아니다. 사명자이다. 사명(使命)이 뭐냐? 목숨을 부리는 자에게 충성을 다하는 것이다. 직업이야 못하겠다면 그만두면 되지만, 사명은 끝까지 감당해야 하는, 목숨을 바쳐 주군의 뜻을 이뤄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명자는 사명에 부도나지 않기 위해 목숨을 건다. 직업은 내가 선택한다. 그러나 사명은 소명을 받은 자만이 걷는 길이다. 그래서 사명자의 성과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고, 평가할 수 없는 것이다. 돈을 벌려면 굳이 무엇하러 주의 종의 길을 가겠는가. 험악하기 그지 없는 길인데.

사람들은 종종 목회를 하나의 직업처럼 바라본다. 그러나 목회는 영혼을 구원하고 섬기는 일이다. 그 어떤 일보다 고귀한 일이다. 보이는 것을 다루는 일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를 감당하는 일이니 세상이 이를 어찌 알랴. 사명자의 평가와 포상은 주님만이 하신다. 그날에 상과 면류관으로, 열 고을의 왕으로 포상하실 것이니, 이 길을 마다하지 않고 가는 것 아니겠는가. 우리 모두는 크고 작은 사명을 부여받은 사명자다. 세상 눈을 의식하지 말고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쓰소서.”라며 어린 나 귀처럼 쓰임 받는 자들이 되자.

가장 행복한 사람은 주는 사람이다(행20:35)

우리가 인도(India), 아프리카(Africa), 동남아시아, 남미 등을 비롯한 제3세계 국가들에 복음을 전할 때면, 음식을 제공하거나 구호품 등을 전달하며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물려든 무리들을 먹이셨고, 구제에 힘쓴 고넬료에게 이방인 최초로 성령을 부어 주셨지요(사도행전 10장).

우리는 필리핀(Philippines) 세부(Cebu) 집회 때마다 쌀을 제공했고, 인도에서는 직접 음식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남미 파라과이(Paraguay)나 우루과이(Uruguay) 같은 경우는 한국 성도들이 모아준 구제품들을 컨테이너로 해마다 실어보내곤 했습니다.

우리는 이번 세부집회에서도 쌀 5천 부대를 준비하여 집회 참석자들에게 제공

려주신 것입니다. 왜? 바로 여러분을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죄악에서 건지시고 가난과 병과 고통에서 해방시켜주시려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인 것입니다. 오늘 내가 전하는 복음, 이 기쁜 소식을 듣고 깨달아 행동으로 옮기면,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세상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가난과 병과 저주와 고통을 주는 악한 마귀와 귀신들을 추방하며 복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를 잘 살게 할 자신이 있는 목사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지만, 딱 한 가지 못하시는 게 있는데, 바로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

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여 주십니다.”

무더운 날씨에 집회가 열린 농구장 실내는 모인 무리로 인하여 더욱 찜통 같았습니다. 더구나 영어, 세부어, 이렇게 3자통역으로 진행하려니 목사님은 더욱 고도의 집중력, 엄청난 영력과 체력이 요구되는 집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목사님은 땀을 비 오듯 흘리시면서 어떻게 하면 쉽게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까, 정말 혼신을 다하셨습니다. 농부가 가을의 수확을 위해서 봄에 땅을 기경하고, 씨를 뿌리고, 물과 거름을 주며 뜨거운 태양과 혹독한 태풍 등, 갖은 고난을 견뎌 인내하여도, 결국 그 식물을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농부는



2026 필리핀 세부 집회 광경(세부 스포츠 센터)

했습니다. 이번 집회를 위해 한국에서 금식하며 기도한 교단의 종들과 성도들, 선교비를 제공한 성도들과 땅끝예수전도단의 많은 회원들, 모두의 헌신이 이루어낸 작품입니다.

목사님은 집회에 참석한 무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온 것은 여러분 스스로 왔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시지 않으면 울 자가 없다’(요6:65)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 여기를 찾아왔다고 생각하겠지만, 한국에서 여러분들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였기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불

성경은 종이쪽지에 불과한 것이요, 그렇다면 나는 당장 목사 그만둘 것입니다. 누구보다 세상을 잘 아는 나인데, 내가 내 물질을 써가며 이 복음을 전하는데 올인하며 몸부림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살아서 지금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지가 마비되어 움푹달작 못하는 지경에 어떤 의사가 나를 고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이름을 불렀더니 내 사지가 펴지고 건강을 얻었기에 지금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내가 전하는 예수를 믿고 죄를 회개하며 간절히 하나님께 소원하는 것을 구해보세요. 하나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목사님과 목사님을 도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의 노력이 하나님께 상달되어 반드시 이 필리핀 세부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흥왕해지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주며 사는 자입니다. 심을 때 기쁨은 추수해본 자만이 압니다.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행20:35). 그에게 하나님이 흔들여 놀려 넘치도록 복을 안겨주십니다(눅6:38). 기도해주신 모든 분께 주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한은택 목사



쌀 5천 부대를 제공하였다



세부예수중심교회 성도들과 함께



예수 이름으로 목발을 들고 걷고 있다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시128:1~6)

크리스천 가정이 누리는 참된 행복

오늘 설교 제목이 ‘크리스천 가정이 누리는 참된 행복’입니다. 이 말인즉 세상 가정이 누리는 행복과 크리스천 가정이 누리는 행복에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고, 세상 가정이 누리는 행복은 참된 행복이라 부르기에는 불완전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행복을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로 판단합니다.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환경, 자녀의 성공, 풍족한 생활을 행복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 기준으로 보면 어찌면 하나님을 믿는 가정은 그 기준에 한참 미달될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대체로 가난하거나 병들었거나, 외롭고, 상처입은 자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행복한 가정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행복한 가정의 샘플이 될 만한 가정이 없습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믿음의 선전들조차도 행복한 가정을 꾸렸다고 말하기가 주저됩니다. 아담의 가정에는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비극이 있었고, 노아의 가정에는 수치가 있었으며, 아브라함의 가정에는 갈등이 있었습니 다. 야곱의 가정은 속임과 다툼이 끊이지 않았고, 다윗의 가정도 눈물과 아픔이 많았습니다. 이런 가정이 어찌 하나님의 사람의 가정인가 싶을 정도입니다.

성도들의 가정을 봐도 그렇습니다. 심방을 다녀보면 많은 가정이 저마다의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자녀 문제, 건강 문제, 관계의 문제로 눈물짓는 가정이 많습니다. 행복과는 담을 쌓은 가정들이 부지기수입니다.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행복한 가정은 하나님이 함께 하는 가정이다

그런데 이걸 육적인 눈으로 봤을 때 이런 겁니다. 세상 기준으로 따지니까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육의 눈이 아니라 영의 눈을 뜨고 보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세상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면 얘기가 180도 달라집니다.

여러분, 크리스천의 행복은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 즉 주님의 임재입니다.

‘사철에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이것이 크리스천의 행복한 가정입니다. 하나님을 모신 가정은 비록 한 칸의 초가 일지라도 천국이라 했습니다. ‘천국’이란

행복한 가정의 대명사가 아닙니까? 그럼요, 하나님을 모신 가정, 그래서 예배하는 삶을 살고, 순종하는 삶을 살고, 헌신하는 삶, 용서하고 사랑하는 삶을 사는 가정이 진정 행복한 가정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수24:15) 고백한 것입니다.

가정의 진짜 행복은 세상이 부러워하는 화려함에 있지 않습니다. 영의 눈으로 보면 믿음의 가정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소망을 가진 가장 복된 가정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모시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로 참된 행복한 가정입니다.

“뭇 소리야. 당장 먹고 살 것도 없는데 무슨 행복? 저 사람은 하나님 없이도 저렇게 평평거리고 잘사는데... 저게 행복이지.” 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도 그렇게 생각했 답니다. 세상 사람이 잘 되고, 병도 안 걸리고, 죽을 때도 편하게 죽는 것을 보고 실족할 뻔했다고 했습니다. 시험들 뻔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가 성소에 들어가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저희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저희를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저희가 어찌 그리 졸지에 황폐되었는가 놀람으로 전멸하였나이다”(시73:17~19). ‘아! 저들은 파국을 향하여 쪽 미끄러지고 있는 거구나. 그들의 결국은 파멸이구나.’라고 깨달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행복은 사라질 것들입니다. 바닷가 모래 위에 지은 것처럼, 파도가 치면 다 무너질 것들입니다. 그래

서 전도자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전1:2)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 입을 삼가야 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사는데~’, 곧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말3:14), 이런 말일랑 일절 금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야 어찌 좋은 날을 보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것들로는 참된 행복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에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

온 겁니다. 그는 일찍 성공하여 재산이 아주 많은 자였습니다. 세상

눈으로 보면 완벽한 하게 행복한 사람이요, 행복한 가정을 꾸린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이 참된 행복

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뭔가 채워지지 않았으니까요. 예수님은 찾아온 그 청년에게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 했지만, 그는 눈에 보이는 행복을 놓지 못해 결국 왔던 길로 되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주님이 주시는 참된 행복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요.

그러나 다니엘,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는 달랐습니다. 참되고 영원한 기쁨과 행복을 얻기 위해 그들은 죽음도 불사했던 것입니다.

성 프란시스에 대해 전해 내려오는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겨울날, 프란시스는 눈이 소복이 쌓인 들판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하나님만 사랑하며 청빈하게 살았지만, 문득 마음 한편에 외로움이 밀려왔다고 합니다. 자신에게는 아내도 없고, 자녀도 없으며, 따뜻한 가정도 없다는 생각이 스쳐 지나간 것입니다. 그는 눈을 굴려 큰 눈사람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작은 눈사람들을 더

만들며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나의 아내이고, 이 아이들은 나의 자녀들이다.” 그리고 다음 날 다시 그곳에 가보니, 햇볕 아래 눈사람들은 모두 녹아 사라지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보며 프란시스는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세상 것은 눈사람처럼 잠시 있다가 사라진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얻는 행복과 기쁨은 영원하다.”

영의 눈을 뜨면 진정한 행복이 보인다

그렇다면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모신 것으로만 만족하고, 부족하고 없는 상태에서 자위하며 살아야 하나요? 그럴 리가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네 손이 수고한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보다 네 집 내실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네 상에 돌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실찌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네 자식의 자식을 볼찌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찌로다”(시128:1~6).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 복되고 형통하고, 예비된 축복인 예루살렘의 복이 넘치고, 장수하고, 평강이 있다고 하십니다. 거기에 영생의 복까지 더해지니 복에 복을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을 모신 가정이 매일 싸우면 안 되겠지요? 응당 사랑이 넘쳐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의 정의가 잘 정리되어 있는데, 거기서 가장 강조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딘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잠21:19)는 말씀이 있는데, 왜 다들 까요? 한쪽이 참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한쪽이 오래, 모든 것을 참으면 절대 다툼 일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오래 참아 구원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이 오래 참아 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가족 간에 오래 참아주고, 견뎌주면 더욱 견고한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예배하며 사는 가정, 거기에 가족 간에 사랑으로 감싸며 무슨일에든 서로 오래 참아준다면 참된 행복이 넘치는 가정이 왜 안 되겠습니까. 그런 가정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흔들여 눌러 넘치게 주실 것입니다. 제발 이런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총회장 이초석 목사

:: 객원컬럼 ::

행복한 가정

5월, ‘가정의 달’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현실 속에서 ‘가정’이라는 단어는 때로는 무거운 짐이나 상처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가족 간의 대화는 단절되고, 세대 간의 갈등은 깊어지며, 경제적인 어려움과 가치관의 차이로 인해 많은 가정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위기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어떤 가정을 꿈꾸며 세워가야 할까요? 가정은 하나님께서 천지창조 후 직접 세우신 최초의 기관이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입니다. 진정으로 행복한 가정은 세상의 기준이나 물질적인 풍요로움이 아닌 오직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질 때 비로소 완성될 수 있습니다. 첫째, 행복한 가정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신앙의 터전입니다. 가정의 진정한 주인은 부모도, 자녀도 아닌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시편 127편 1절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라고 고백합니다. 가정의 기초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위에 든든히 서 있을 때, 어떤 비바람이 몰아쳐도 견고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모의 신앙은 자녀에게 흘러가는 가장 위대한 유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여호수아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수24:15)고 선포했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날 우리 모든 가정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상화평 목사

둘째, 행복한 가정은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가 실천되는 작은 천국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이이기에 가장 쉽게 상처를 주고받는 곳이 바로 가정입니다. 때로는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가족의 마음에 아주 깊은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완벽한 부모, 완벽한 자녀, 완벽한 배우자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들이기에 가정 안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셋째, 행복한 가정은 이웃과 세상을 향해 축복을 흘려보내는 통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축복하시고 평안을 주시는 이유는 단지 우리 가족끼리만 잘 먹고 잘 살라는 이기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창12:3)고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의 가정은 세상을 향한 축복의 통로로 부름 받았습니

다. 우리 가정에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을 향해 흘러가야 합니다. 소외되고 외로운 이웃을 돌아볼 때, 우리 가정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거룩한 도구로 쓰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행복한 가정’의 참된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이 땅에서 미리 맛보는 작은 천국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상화평 목사

:: 경배와 찬양 ::

언젠가는 바로 오늘일 수 있다

최근에 잠시 병원에 입원할 일이 있었습니다. 전혀 생각지 못한 때 입원하게 되어 저도 그렇지만 주변에서 너무 놀랐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될 것을 저는 알고 있었었습니다. 건강하지 않은 습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으로 계속 살아간다면 ‘언젠가 이상이 있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언젠가’라고 생각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말 그대로 ‘언젠가’이기 때문에 그제 내일이 될지, 조금 더 먼 미래가 될지 모르지만, 당장은 눈에 띄는 문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확실히 문제가 될 일이었고, 습관을 바꾸지 못한 저는 결국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병원에 누워서 저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회개 기도를 할 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용서해주시고,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셔서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지 않게 해주세요.” 살아가면서 알고도 짓는 죄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사소하다 생각하고 쉽게 넘기게 될 때가 있었었습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니까 회개하면 되고, ‘언젠가 고치면 되겠지’ 하며 순간순간을 넘어갔습니다. 그 가운데 만약 이번에 겪은 일이 입원이 아니라 죽음으로 끝났다면 과연 나는 어땠을까요? 사람이 언젠가 죽는다는 것은 확실한 사실입니다(히9:27). 그런데 그게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모레가 될지, 혹은 또 먼 미래가 될지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마24:36). 그렇기 때문에 총회장 목사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작은 것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눅16:10, 마5:19). ‘언젠가’가 아니라 지금부터 말입니다.

윤에녹 전도사



:: 생명의 말씀 ::

:: To Be Succeeded ::

빛을 들고 세상으로

어느 날, 상사분이 다른 직원과 나를 부르셔서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다. 조용히 식기도를 하고 눈을 뜬 순간, 다른 직원은 흠칫 놀라는 기색이었고, 상사분 역시 말없이 굳은 모습이였다. 이후 원래 얘기했던 근무 조건이 예고 없이 변경되고, 힘든 일을 요구되고 일이 추가되기도 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육체의 상전에게 성실함으로 주께 하듯 하라’,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순복하라’는 말씀이 떠올라 날마다 맡겨진 일에 집중했다. 반응은 고객들로부터 먼저 나타났다.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신 분들이 상사에게 나에 대한 좋은 말을 아끼지 않으셨고, 다른 일터로 데려가거나 추천하고 싶다고도 하셨다. 나는 주일에 일하는 곳은 갈 수 없다고 그리스도인임을 명확히 언급했고, 일의 결과에 만족하신 상사분께서는 흡족해하시며 이후 나를 더욱 신뢰해주셨다. 일할 때 요셉, 다니엘, 느헤미야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떠올릴 때가 있다. 그들은 세상 가운데서 자신이 맡은 일들을 어떠한 마음과 태도로 감당했을까? 그들의 일은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았고, 그들의 일터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신앙을 증명하는 곳이였다. 요셉이 일하는

중에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자,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이까’ 하며 뿌리췌던 사건, 왕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사자굴에 던진다는 조서가 내려졌어도 변함없이 하루 세 번 기도하며 일했던 다니엘, 그리고 왕의 술 관원장으로 섬기던 느헤미야가 왕의 물음 앞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에루살렘 성 중건을 요청했던 일이 그 증거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그들을 당신의 크신 계획을 이루는 자들로 사용하셨고, 세상과 만민은 그들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분을 찬양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때때로 맡겨진 삶이 지치고 실망스러울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께서 친히 내 안에 와 계심을, 그분이 나보다 앞서 길을 내시고, 나와 함께 가시며, 나를 통해 당신을 드러내셔서 찬양과 영광을 받고자 하심을, 이 사실을 상기할 때 지치고 상한 마음이 소생되고 세상을 넉넉히 이길 힘을 얻어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삶의 예배를 살아낼 수 있다. 오늘도 빛을 들고 직장으로, 학교로, 가정으로 나가 나의 신앙이 삶으로 증명되는 멋진 하루를 살아보자.

이국진 사모

원망과 선함

새신자 중에 80대 어르신 한 분이 계신다. 평생 예수를 모르셨던 분인데, 그 연세에 전도되어 교회에 나오시고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다. 한날은 그 어르신과 같이 식사를 하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 어르신의 할아버지는 참봉이셨는데, 강릉에서 삼천석 땅을 가진 가장 부유한 집안이었고, 그 마을의 유력자였다고 한다. 그런데 ‘부자가 망해도 삼대 간다’는 옛말이 무색할 정도로, 그렇게 큰 부자였던 집안이 아버지 대에 폭삭 한순간에 망했단다. 그 이유를 말씀해주셨는데, 이유가 참 놀라웠다. 강릉에서 대관령으로 가는 수백 수천 명이 다니는 큰 길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사유지라고 그 땅을 막으셨다고 한다. 그래서 온 마을 사람들이 아주 먼 길을 돌아서 다니게 됐고, 먼 길을 돌아서 다닐 때마다 참봉맥을 원망했다고 한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그 길을 막고 나서부터 그 집안이 갑자기 몰락했다는 것이다. 나는 생각이 깊었다. 마을 사람들의 원성으로 삼천석 땅을 가진 그 부잣집이 한순간에 망할 수도 있는데, 우리 크리스천들은 더더욱 원망들을 행동을 하면

안 된다. 더 나아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한다. 매주 수요일마다 젊은 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이 ‘할렐루야’ 어깨띠를 매고 교회 주변 공용주차장과 동네 구석구석을 청소하는데 그렇게 흐트하고 보기 좋을 수가 없다. 온갖 폐기물과 쓰레기가 쌓여있는 데미들을 싹 걷어내고 빗자루질하니 주차 공간도 넓어지고 주차할 때마다 기분이 좋아진다. 그리고 우리 교회 청년에게 1층에 가게가 있는 우리 교회 건물 앞을 매일 청소하라고 했는데, 나는 이것이 교회와 예수님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한겨울에 눈이 와서 길이 미끄러울 때는 일찍 나와서 교회 앞 주차장에 쌓인 눈부터 쓸어내고 염화칼슘도 뿌려놓는다. 1층 식당 손님들도, 우리 교회 성도들도 활짝 웃게 되고 예수님도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결코 원망 들을 일일랑 하지 말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이런 작은 친절과 배려, 희생과 섬김을 통해 복음을 더욱 널리 전파하는 우리 예수중심교단 전 성도가 되기를 축복하고 기도한다.

장순천 목사

:: 성령에서 배운다 ::

:: 신앙에세이 ::

겸손하게, 온전히!

우리는 흔히 ‘믿음이 큰 사람’ 하면 떠올리는 모습이 있습니다. 해박한 성경 지식을 가진 사람, 오랜 세월 교회를 다닌 사람, 교회에서 직책이 높은 사람입니다. 분명 그것은 귀한 믿음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복음서를 통해 예수님께서 직접 ‘큰 믿음’이라고 칭찬하신 인물들을 깊이 묵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마8:10)고 인정받은 가버나움의 백부장, 그리고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마15:28)라고 칭찬받은 수로보니게 여인입니다.

이방인이었던 두 사람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겸손’했고, 예수님만이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다는 사실을 ‘온전히’ 믿었다는 점입니다.

가버나움의 백부장은 로마 군인이었습니다. 당시 로마는 유대인들을 억압하던 강대국이었고, 그는 약 100여명의 병사를 거느리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장교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가 병든 종 하나를 위해 예

수님 앞에 나옵니다. 자신의 권력을 내세우지도, 군인으로 명령하지도 않았습니 다. 하나님만 바라는 한 인간의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겸손히 섰습니다.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백부장은 예수님의 권세를 온전히 믿었습니다. 직접 오시지 않아도, 손을 얹지 않으셔도, 말씀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을 진짜로 믿었고, 예수님은 그를 칭찬하시며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을 칭찬하신 이유는 대단한 종교적 업적 때문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신의 지위를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의 권세만 인정하고,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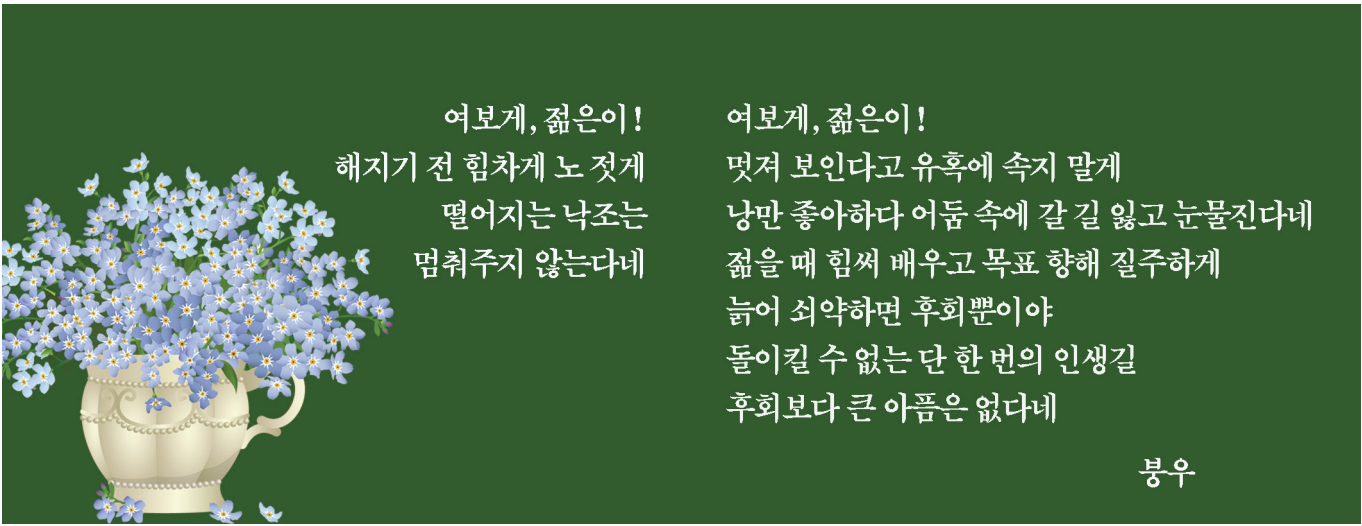
수로보니게 여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귀신 들린 딸을 살리기 위해 예수님께 나아왔지만, 예수님께서는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는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상처받고 돌아설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물러서지 않습니다. 먼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뿐이라는 사실을 붙들었습니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녀에게는 바닥까지 낮아져도 전혀 상관 없는 절박함과 겸손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자비와 은혜를 끝까지 붙드는 온전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딸의 문제를 해결할 뿐 아니라, 예수님께 “큰 믿음”이라는 칭찬까지 받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큰 믿음은 종종 ‘내가 얼마나 하는가’에 귀결되기 쉽습니다. 주의 일을 많이 하고 있다는 스스로의 만족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 내가 성경을 이만큼 안다는 은근한 자부심은, 우리가 스스로 깨어 있지 않으면 어느새 마음 깊은 곳에 스며듭니다.

하지만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은, ‘내가 한 것’들에 대한 자랑스러움이 아닌,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내가, 하나님의 하실 일을 온전히 갈망하는 마음’에 있음을! 겸손하게,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도 인정하실 진짜 믿음을 소유하는 우리가 됩시다!

하인명 집사



여보게, 젊은이!
해지기 전 힘차게 노젓게
떨어지는 낙조는
멈춰주지 않는다네

여보게, 젊은이!
멋져 보인다고 유혹에 속지 말게
낭만 좋아하다 어둠 속에 갈 길 잃고 눈물진다네
젊을 때 힘써 배우고 목표 향해 질주하게
늙어 쇠약하면 후회뿐이야
돌이킬 수 없는 단 한 번의 인생길
후회보다 큰 아픔은 없다네

봉우

:: 저 높은 곳을 향하여 ::

걱정이 있으신가요?

요즘은 사람들이 고민과 걱정이 생길 때 인공지능에게 털어놓고 위로받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 주변만 해도 챗GPT 등 인공지능에게 상담을 받고, 그것을 맹신하는 바람에 웃지 못할 일이 왕왕 벌어집니다. AI는 대량의 데이터를 학습해서 답변을 생성하는데,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의존해 버린 케이스죠. 변화하는 시대에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것은 중요하고 꼭 필요한 능력입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에게 의존하게 되는 순간, 수단과 목적이 뒤바뀝니다. 특히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순간, 문제는 심각해지죠. 걱정 근심, 염려가 생기면 다른 누구보다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저도 최근 몇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머릿속으로 혼자 여러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주변에 조언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문제가 해결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러면서 눈을 떴는데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잊고 염려하는 자녀에게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또 원망인지 불평인지 모를 기도 대신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럴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하십니다.

사실 걱정의 90%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유명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을 일들이 파도처럼 마음을 불안하게 만드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는 때, 내 마음과 생각을 평강으로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내 생명의 근원인 마음만 잘 지켜도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가장 지혜로운 자는 만든 자의 말을 듣는 자’라는 총회장 목사님 말씀처럼, 염려가 생기면 먼저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

로 아뢰는 것이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매일 성전에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큰 복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면 자연스럽게 내 염려와 근심을 털어놓게 되기 때문입니다. 종종 다른 교회에 다니는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눴으면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거나, 장소가 없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우리 교회는 목사님께서 기도를 늘 강조하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문화가 잡혀 있고, 어떻게든 한 번이라도 더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말고 모든 걱정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세요. 내 염려를 주께 맡기시면 주께서 나를 돌보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대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채우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평안 가운데 서는 한 해가 되길 축복합니다!

전소희

관계의 거리

나에게는 누나와 남동생이 있다. 보통의 형제자매가 그렇듯 어렸을 적에는 종종 티격태격 싸운 적도 많았지만, 커 가면서, 특히 엄마가 돌아가신 후부터 우리 삼남매는 푹푹 묻쳐 서로 힘을 주고받으며 잘 지내왔다.

그러던 어느 날 언짢은 대화가 한 번 있었 후, 그다지 화해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 억울한 점도, 오해도 있었을 수 있겠지만, 대화하지 않고 지내다 보니 자연스럽게 거리가 멀어졌다. 아내는 내게 ‘화해하라’고 다독였지만, 막상 또 싸운 것도 아니어서 화해한다는 것도 마음에 와닿지 않았다.

지금은 누나와 동생이 내 아내, 그리고 아이들과는 왕래하지만, 나는 예전처럼 그들과 소통하진 않는다. 싸운 것도, 억울한 것도, 오해도 없이 그저 사이가 멀어진 채로, 다시 가까이 가려고 하지도, 서로의 삶을 공유하려고도 하지 않는다. 가족의 끈으로 묶여만 있을 뿐, 예전처럼 친하지 않다. 아마 원인은 대화인 듯하다. 더 자세히는 대화하려는 의지와 노력의 문제인 듯하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저 그렇게 사이가 멀어진 채로 있는 사람들이 있다. 공에 배는 참석하여 끈으로는 묶여있으나 하나님과 친하지 않다. 하나님 말씀이 함께하는 것이 곧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건만, 머리로만 원하고 말아버린다. 어느 부서이든, 구역이든 속하지도 않아서 서로의 삶을 공유하는 성도의 교제도 없다. 그렇게 관계가 멀어져 가고, 멀어진 채로 있지만, 딱히 개선을 위한 의지와 노력은 없다.

다시 친해지려 하니 어색하고 불편한 마음이 든다. 그래도 해야겠지? 아니! 해야한다. 가족이 남이 되면 안 되니.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안 되니.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하시리라”(약4:8).

박찬영 집사

멕시코 비야에르모사 집회

6월 3일(수)~12일(금)

서울성전 건축헌금 계좌안내

국민은행 026401-04-297823
예금주: 예수중심교회
* 계좌 송금 시
성함과 소속교구(교회) 순서로
기입해주세요